

## 지체장애학생의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이준상\*\*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요약》

---

이 연구는 지체장애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아탄력성의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토하고, 이들에 대한 특수교육 및 사회복지 실천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체장애학생 259명의 설문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t$ -test,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조사대상자의 학교생활적응의 정도는 나이, 학교유형, 거주형태, 장애유형, 사회복지시설 이용 유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지체장애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자아탄력성의 정적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체장애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증진하기 위한 논의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 지체장애학생, 학교생활적응,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

\* 이 연구는 대구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ljs413@daegu.ac.kr)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아동 및 청소년 시기는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변화를 경험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아동기의 학교적응은 청소년기나 성인기에서의 적응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아동기의 학교생활적응은 매우 중요하다(Armstrong, Birnie-Lefcovitch & Ungar, 2005). 학교생활적응은 학생이 학교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개인의 요구를 충족하고,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허희선, 박승희, 2011). 학교생활에 원만한 적응은 학생의 행동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개인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학교생활에의 부적응은 심리적 긴장감을 유발시키고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여 학령기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김영주, 2007).

특히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신체적인 기능 제약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활동 및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고(Varni et al., 1991), 학생들의 심리적 위축을 야기하여 학교생활적응을 힘들게 한다(Wilson et al., 2006). 지체장애학생들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지체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활동과 역할이 제한되고, 사회참여를 하는데 있어서 타인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으며(Brown & Gordon, 1987; Mulderij, 1997), 또래와의 제한된 접촉으로 인하여 사회성 기술이 부족하고(Philip & Duckworth, 1982), 제한된 내적 동기(Levitt & Cohen, 1977; Richardson, 2002에서 재인용)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지체장애인들의 학교생활을 관찰한 연구에서, 지체장애인들은 자신의 나이와 맞지 않는 어린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고(Dallas, Stevenson, & McGurk, 1993), 학교에서 또래아동들과 협동적인 놀이 보다는 혼자서 노는 경향이 강하며, 친구들 보다 선생님과 놀려는 경향이 높다. 또한 치료로 인하여 학교 수업시간에 빠지거나 자유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수업시간 외에는 급우들과 함께 상호작용할 기회를 가질 수도 없다(Lightfoot, Wright, & Sloper, 1999).

이러한 학교생활은 지체장애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 참여의 기회를 배제하고, 이는 성인시절까지 영향을 미쳐 사회적, 정서적, 심리적인 어려움 등의 이차적인 장애를 가지게 만든다(Missiuna & Pollock, 1991). 이러한 이차적인 장애는 외로움, 낮은 자부심, 사회 부적응, 실업 등이 포함된다(Wallander & Varni, 1989; Yude & Goodman, 1999).

지체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이 인생 후기의 사회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체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

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장애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들은 대부분 학습과 관련한 개별화 교수, 협력교수, 지역사회중심 교수 등 교수방법 및 전략에 관한 연구들(김형일, 2006; 박상용 외, 2012; 박재국 외, 2011; 정일호, 2002; 최승숙, 2006)과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김주경 외, 2006; 이원재, 박미화, 2009; 한동일, 우병호, 2010; 허희선, 박승희, 2011), 그리고 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실태에 관한 연구들(김동희, 2008; 김희규, 2009; 박재국 외, 2011; 신현기, 2012)로서, 지체장애학생뿐만 아니라 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비장애아동인 일반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나 외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개인요인과 심리사회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정미영, 문혁준, 2007). 개인요인으로는 성별(김송자, 2005; 이수경, 2004; 정미영, 문혁준, 2007), 학년(신진희, 2005; 장우민, 2003)이 대부분의 연구에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심리사회요인으로는 자아탄력성(고근중, 2006; 강부자, 김은혜, 노충래, 2012; 송영경, 2006; 정미영, 문혁준, 2007)과 사회적 지지(곽민경, 서보준, 2012; 정미영, 문혁준, 2007) 등이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미국의 경우 지체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지배적이다.

사회적 지지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Richardson, 2002). 아동이 지각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의 부적응에 대한 주요한 보호요인(Varni et al., 1991)이며, 사회적 지지 중에서 급우들의 지지를 우울증의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Varni et al., 1989)으로 보고하였다. Varni et al.,(1991)의 사지절단청소년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낮은 사회적 지지는 우울증의 위험성을 높이고 자기존중감을 떨어뜨린다고 하였으며, 2003년에 전국을 대상으로 한 Witt, Riley, & Coiro(2003)의 연구에서는 신체적인 기능이 낮은 청소년들이 심리사회적인 부적응이 높게 나타나며, 류머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연구(Varni, Wilcox, & Hanson, 1988; Wilson et al., 2006에서 재인용)와 척수손상장애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Hommeyer et al., 1999)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적 지지가 지체장애학생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La Greca, Bearman, & Moore, 2002; Lavigne & Faier-Routman, 1993; Wallander & Varni, 1995).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요인으로는 자아탄력성을 강조하고 있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Armstrong, Birnie-Lefcovitch, & Ungar, 2005; Dumont & Provost, 1999; Hemmingsson & Borell, 1996; Wilks & Spivey, 2010). 자아탄력성은 내부적, 외부적 스트레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Werner & Smith, 1982; Armstrong, Birnie-Lefcovitch, & Ungar, 2005에서 재인용)으로서,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아동의 발달수준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Armstrong, Birnie-Lefcovitch, & Ungar, 2005).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지체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들 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하여 밝혀진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특히 지체장애학생은 개인차가 심하고 장애의 정도가 점차 중도 및 중복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의 계획 및 수립이 요구(김시원, 김정연, 황지현, 2012)됨에도 불구하고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중 13%(10,376명)를 차지하는 지체장애학생(교육과학기술부, 2010; 박상용 외, 2012에서 재인용)들에 대한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파악하여 지체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방안 또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체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기여하고자 한다.

## 2. 연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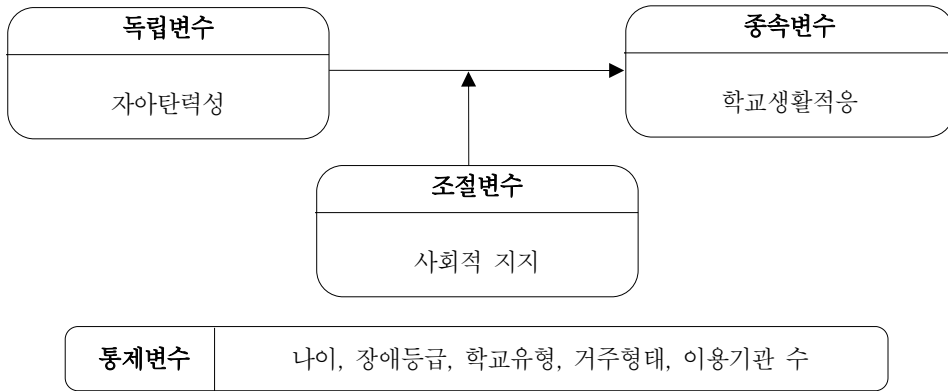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지체장애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 둘째, 지체장애학생의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적응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셋째, 지체장애학생의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또한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지체장애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것으로서, 종속변수는 학교생활적응이며, 독립변수는 자아탄력성, 조절변수를 사회적 지지로 설정하여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 2.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지체장애학생이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지체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이 154명(59.5%), 여학생이 105명(40.5%)이었고, 나이는 10-12세(초등)가 74명(28.6%), 13-15세(중등)가 51명(19.37%), 16-18세(고등)가 134명(51.7%)이었다. 재학 중인 학교유형은 특수학교가 151명(58.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이 60명(23.2%),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이 48명(18.5%)이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조사한 결과, 본인 집에서 생활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94명(74.9%)이었고, 기숙사에서 생활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43명(16.6%), 거주시설에서 생활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2명(8.5%)이었다. 장애유형으로는 지체장애가 86명(33.2%), 뇌병변장

26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4권 2호)

아가 110명(42.5%)이었으며,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63명(24.3%)으로 나타났다. 장애등급으로는 1급인 경우가 126명(48.6%)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급인 경우가 93명(35.9%), 3급인 경우가 36명(13.9%), 4급인 경우가 4명(1.5%)이었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수가 1곳인 경우가 131명(50.6%), 2곳 이상인 경우가 80명(30.9%)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81.5%가 1곳 이상의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18.5%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N=259)

구 분		빈도(명)	비율(%)	구 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54	59.5	장애 유형	지체장애	86	33.2
	여성	105	40.5		뇌병변장애	110	42.5
나이	10-12세(초등)	74	28.6		중복장애	63	24.3
	13-15세(중등)	51	19.7	장애 등급	1급	126	48.6
	16-18세(고등)	134	51.7		2급	93	35.9
학교 유형	특수학교	151	58.3		3급	36	13.9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	60	23.2		4급	4	1.5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48	18.5	이용 기관 유무	없다	48	18.5
	거주 형태	본인 집	194		74.9	1곳	131
기숙사		43	16.6		2곳 이상	80	30.9
거주시설		22	8.5				

### 3. 측정도구

#### 1)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학교생활적응이다. 학교생활적응은 학생이 학교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개인의 요구를 충족하고,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며(허희선, 박승희, 2011),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상태를 말한다.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박현선(1998)이 개발한 설문지를 이경복(2006)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와 관련된 내용이 7문항,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내용이 5문항, 학

교규범준수와 관련된 내용이 10문항으로 3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계수를 통하여 측정도구를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아주 그렇다’ 까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경복(200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8$ 로 나타났고, 이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7$ 로 나타났다. <표 2>는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이다.

<표 2> 학교생활적응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설문내용	요인1	요인2	요인3
학교생활이 즐겁다	.895		
학교가는 것을 싫어한다	.874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	.850		
수업시간은 많은 도움이 된다	.733		
나는 우리학교 선생님 대부분을 좋아한다	.692		
담임선생님이 좋다	.675		
나는 대부분의 과목을 좋아한다	.641		
나의 학교성적은 좋다		.880	
나는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764	
나는 공부를 싫어한다		.743	
학교성적은 중요하다		.629	
나는 수업시간에 학업태도가 좋다		.532	
수업시간에 무단 이탈한 적이 있다			.887
학교생활에서 근신, 정학 등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877
무단 결석을 한 적이 있다			.868
시험볼 때 남의 답을 보고 쓴 적이 있다			.765

## 2) 독립변수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자아탄력성이다.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능력이며, 개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적응해 나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성 척도는 김민정(2005)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 등의 내용이고,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계수를 통하여 측정도구를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9문항을 구성하였다. 문항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아주 그렇다’ 까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민정(200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4$ 로 나타났고, 이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5$ 로 나타났다. <표 3>은 자아탄력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이다.

<표 3> 자아탄력성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설문내용	요인1
나는 새롭고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789
나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779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703
나는 나 자신이 꽤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것이다	.694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인 것 같다	.679
나는 늘 가던 장소에 갈 때 여러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한다	.648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647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617
나는 보통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다	.558

### 3) 조절변수

이 연구의 조절변수는 사회적 지지이다. 사회적 지지는 지체장애학생이 가족, 친구, 교사, 전문가 등 타인으로부터 받는 인정과 사랑, 정보, 물질적 원조 등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 척도는 한미현(1996)이 사용한 척도를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원척도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가족지지 8문항, 친구지지 8문항, 교사지지 8문항 등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전문가지지 8문항을 추가하였으며, 이는 지체장애학생의 경우 장애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이나 치료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복지사와 치료사 등 전문가들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지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총 29문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문항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아주 그렇다’ 까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미현(199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1$ 로 나타났고, 이 연구

에서는 Cronbach's  $\alpha = .95$ 로 나타났다. <표 4>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의 결과이다.

<표 4> 사회적 지지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설문내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사회복지사/치료사선생님은 날 잘 도와주시는 것 같다	.901			
사회복지사/치료사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889			
사회복지사/치료사선생님은 내 기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	.867			
나는 사회복지사/치료사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기가 편하다	.833			
나는 사회복지사/치료사선생님과 친한 것 같다	.828			
사회복지사/치료사선생님은 날 좋아하시는 것 같다	.828			
사회복지사/치료사선생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같다	.811			
내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사회복지사/치료사선생님은 날 걱정해 주시는 것 같다	.781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817		
우리 선생님은 내 기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		.813		
우리 선생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 같다		.779		
우리 선생님은 날 좋아하시는 것 같다		.778		
나는 우리 선생님과 친한 것 같다		.775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기가 편안하다		.770		
내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선생님은 날 걱정해 주시는 것 같다		.765		
우리 선생님은 날 잘 도와주시는 것 같다		.731		
내 친구들은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825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			.800	
내 친구들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			.768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친구들은 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 같다			.753	
내 친구들은 재미있는 활동에 나를 참여시켜준다			.742	
나와 내 친구들은 서로 잘 도와주는 것 같다			.697	
내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654	
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645	
부모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840
내가 힘들어 할 때 우리 부모님은 내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 같다				.794
부모님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				.784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				.771
부모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617

#### 4) 통제변수

이 연구의 통제변수는 나이, 장애등급, 학교유형, 거주형태,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수이다.

### 4.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지체장애학생이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지체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의 표본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률표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등록된 장애인 명부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접근성의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적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2011년 3월에서 4월까지 전국의 장애인복지관 25곳과 특수학교 8곳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우선 전화로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을 하고 연구 참여 협조를 구하였다. 설문에 동의한 표집기관에는 연구자가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각 표집기관의 사회복지사, 특수학급교사, 치료사 등의 담당자는 설문지를 지체장애학생에게 배부하였고, 이 설문지는 가정으로 전달되어 작성되었으며, 작성된 설문지를 다시 담당자가 회수하여 연구자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지체장애학생은 담당교사가 설문지 작성에 도움을 주었다. 수거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방문 또는 우편으로 회수하였고, 총 300부가 배부되어 270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무응답이나 고정반응을 보이는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59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과 오류 검토 작업을 거친 후 SPSS 19.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이 연구의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인들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크론바하의 내적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여 각 변인들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t$ -test, ANOVA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다중공선성을 검증하였으며, Baron과 Kenny(1986)의 조절효과 검증방식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평균중심화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조절효과 검증은 모형 1단계에서 통제변수를,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R^2$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주요 변수의 자료특성

주요 변수들의 자료특성을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의 평균은 3.54점(SD=.69), 자아탄력성의 평균은 3.49점(SD=.68),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3.89점(SD=.60)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토대로 정규성을 확인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왜도의 절대값이 3 미만이고 첨도의 절대값이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변수들의 분포가 정규성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표 5> 주요 변수의 자료특성

구분	변수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SD)	총점평균 (SD)	왜도 (SD)	첨도 (SD)
종속변수	학교생활적응	2.00	5.00	3.54 (.69)	56.67 (11.13)	-.300 (.151)	-.399 (.302)
독립변수	자아탄력성	2.00	5.00	3.49 (.68)	31.38 (6.12)	.314 (.151)	-.187 (.302)
조절변수	사회적 지지	2.21	5.00	3.89 (.60)	112.77 (17.53)	-.380 (.151)	-.209 (.302)

#### 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정도를 살펴보면 <표 6>과 같이, 나이, 학교유형, 거주형태, 장애유형, 사회복지시설 이용 유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나이에서는 10-12세(초등)인 지체장애학생의 경우가(M=59.00, SD=12.95) 13-15세(중등)인 지체장애학생의 경우보다(M=52.80, SD=11.21) 학교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났고, 재학 중인 학교유형에서는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에 다니는 지체장애학생의 경우가(M=60.67, SD=11.79) 특수학교에 다니는 지체장애학생(M=55.77, SD=10.20)과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에 다니는 지체장애학생(M=54.50, SD=12.06)보다 학교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거주형태에서는 학교 내 기숙사나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체장애학생이(M=60.82, SD=9.58) 가정에

32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4권 2호)

서 생활하고 있는 지체장애학생보다(M=55.28, SD=11.29) 학교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났고, 장애유형에서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M=57.09, SD=10.12)과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M=59.95, SD=11.84)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보다(M=50.37, SD=8.30)보다 학교생활적응이 높았다. 사회복지시설 유무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지체장애학생이(M=58.65, SD=10.77)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보다(M=47.96, SD=8.14) 학교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
성별	남자	154	56.51	11.26	-.278	.781
	여자	105	56.90	10.99		
나이	10-12세(초등)(A)	74	59.00	12.95	4.86	.008** A > B
	13-15세(중등)(B)	51	52.80	11.21		
	16-18세(고등)(C)	134	56.86	9.60		
	합계	259	56.67	11.13		
학교유형	특수학교(A)	151	55.77	10.20	5.452	.005** B > A B > C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B)	60	60.67	11.79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C)	48	54.50	12.06		
	합계	259	56.67	11.13		
거주형태	가정	194	55.28	11.29	-3.545	.000***
	시설	65	60.82	9.58		
장애유형	지체장애	86	57.09	10.12	16.797	.000*** A > C B > C
	뇌병변장애	110	59.95	11.84		
	중복장애	63	50.37	8.30		
	합계	259	56.67	11.13		
장애등급	1급	126	57.93	10.91	2.572	.078
	2급	93	56.37	11.66		
	3-4급	40	53.43	10.07		
	합계	259	56.67	11.13		
시설이용 유무	있음	211	58.65	10.77	6.468	.000***
	없음	48	47.96	8.14		

\* $p < .05$ , \*\* $p < .01$ , \*\*\* $p < .001$

### 3.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주요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점검하고, 변수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행렬을 확인한 결과, 변수의 상관계수 절대값이 .80을 넘지 않았으며, 회귀분석 결과 분산팽창계수값이 10을 넘지 않고(최소값 1.043에서 최대값 1.958) 허용값이 0.1이상(최소값 .511에서 최대값 .958)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변수들의 관계는 <표 7>과 같이,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의 정도가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고( $r=.662$ ,  $p=.01$ ), 다음으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 $r=.640$ ,  $p=.01$ ),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 $r=.569$ ,  $p=.01$ ) 순이었으며,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7>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구분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적응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640**		
학교생활적응	.662**	.569**	

\* $p<.05$ , \*\* $p<.01$ , \*\*\* $p<.001$

### 4.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이 연구는 지체장애학생의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가지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검증을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방식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모형 1단계에서는 나이, 장애등급, 학교유형, 거주형태,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 수(이용기관 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모형 1단계의 설명력은 6.2%로 나타났으며, 거주형태( $\beta=-.251$ ,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본인 집보다 기숙사 및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체장애학생의 학교생활적응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가 친구, 선후배, 교사 등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조직 및 단체이므로 기숙사 및 거주시설과 같은 단체생활에서의 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4권 2호)

모형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자아탄력성과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 요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모형 2단계의 설명력은 49.3%로 나타났으며, 모형 1단계에 비해 43.1% 더 설명하고 있다. 모형 2단계에서는 거주형태( $\beta = -.176, p < .01$ ), 자아탄력성( $\beta = .536, p < .001$ ), 사회적 지지( $\beta = .183, p < .01$ )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거주형태가 기숙사 및 거주시설일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높은 학교생활적응을 보여주고 있었다.

<표 8>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요인		모형1			모형2			모형3		
		B	$\beta$	t	B	$\beta$	t	B	$\beta$	t
통계 변수	(상수)	62.871		29.001	60.325		37.249	62.273		34.225
	나이	-.876	-.076	-.872	-.497	-.043	-.665	-.432	-.037	-.584
	장애등급	.963	.045	.649	-.344	-.016	-.311	-.439	-.020	-.401
	학교유형 <sup>1)</sup>	-.004	.000	-.002	1.815	.084	1.254	1.034	.048	.701
	거주형태 <sup>2)</sup>	-6.300	-.251	-3.345**	-4.417	-.176	-3.158**	-5.367	-.214	-3.710***
	이용기관 수	-.131	-.012	-.167	-.377	-.036	-.640	.017	.002	.028
독립 변수	자아탄력성				.984	.536	8.092***	1.067	.582	8.479***
조절 변수	사회적 지지				.110	.183	2.735**	.083	.139	2.007*
상호 작용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011	-.131	-2.264*
F		2.704*			28.224***			25.839***		
R <sup>2</sup>		.062			.493			.506		
R <sup>2</sup> change		-			.431			.013		
Adjusted R <sup>2</sup>		.039			.476			.486		

\* $p < .05$ , \*\* $p < .01$ , \*\*\* $p < .001$

<sup>1)</sup> 학교유형 : 0=일반학교, 1=특수학교    <sup>2)</sup> 거주형태 : 0=기숙사 및 거주시설, 1=본인 집

모형 3단계에서는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50.6%로, 모형 2단계에 비해 1.3%를 높아졌으며, 이는 상호작용항의 투입이 종속변수의 변량을 1.3%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과학연구에서 상호작용항의 R<sup>2</sup> 변화량이 대체로 0.01-0.03 사이에 있다는 보고를 고려할 때(Chaplin, 1991; Whisman & McClelland, 2005; 박현선, 이상균, 2008에서 재인용), 이 연구 결과의 설명력은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적 지지는

지체장애학생의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모형 3단계에서도 거주형태( $\beta = -.214, p < .001$ ), 자아탄력성( $\beta = .582, p < .001$ ), 사회적 지지( $\beta = .139, p < .01$ ) 그리고 상호작용항( $\beta = -.131, p < .01$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거주형태가 기숙사 및 거주시설일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높은 학교생활적응을 보여준다.

#### IV. 논의 및 제언

이 연구는 지체장애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아탄력성의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지체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59부의 응답자료를 토대로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여기에서는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연구 결과를 논의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체장애학생의 나이, 학교유형, 거주형태, 장애유형,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이용 유무에서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장애등급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혜경, 이경복(2006)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교적응이 높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청소년기의 특징적인 현상으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부적응현상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났고, 장애청소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정소연(2009)의 연구에서도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에서 수업을 받는 장애청소년들의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즉, 통합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들은 학교에서 잘 적응하여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민천식, 오원석, 2011). 또한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청소년의 경우 학교생활적응이 낮고(이미화, 2011), 사회적 능력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는데(정소연, 2009), 이는 장애의 중복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이나 사회활동을 하는데 제한점이 더 많고, 이들에 대한 학교와 지역사회 관심과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거주형태의 경우, 이 연구에서는 학교 기숙사나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체장애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이해균(2008)의 연구에서는 통학생이 기숙학생보다 학교적응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추후 연구에서 거주형태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정도를 살펴보고, 장애유형별로 차이점은 없는지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지체장애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은 가족, 친구, 교사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높은 적응행동의 수준을 보이며(정성인, 1998),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만족에 큰 영향을 미친다(김옥선, 오윤자, 최명구, 2005). 청소년 역시 담임교사, 어머니, 친한 친구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에서 적응을 잘하며, 자아탄력성이 높고 긍정적 정서를 많이 느낄수록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진다(구자은, 2000). 자아탄력성이 낮은 청소년들은 학교 환경변화나 외부로부터의 도전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어 스트레스에 민감하고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인 문제가 동반되기도 하여 학교에 부적응하는 경우가 많다(하현주 외, 2008). 또한 자아탄력성은 여러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적응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개인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므로(구형모, 황순택, 김지혜, 2001; Klohnen, 1996) 지체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향상하기 위하여 자아탄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는 학교적응을 돕는 유용한 변인이므로(이미자, 2009),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통하여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고 적절하게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친구, 가족, 교사, 전문가와의 지지 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회적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유연하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지체장애아동들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하여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적응과 관련한 중요한 예측변수로 작용하므로(Wilson et al., 2006; La Greca, Bearman, & Moore, 2002; Lavigne & Faier-Routman, 1993; Wallander & Varni, 1995) 학교와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입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체장애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지체장애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하여 가족, 친구, 교사,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등 사회적 지지 자원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즉, 부모나 교사, 전문가, 또래의 심리적 지원이 지체장애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고,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고자 하는 동기를 높여주며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체장애학생의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또래집단 모임을 구성하여 협력 및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학생-가족-교사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체장애학생의 생활권역(가정 또는 거주시설)과 학교와의 연속선상에서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체장애학생의 경우 대부분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또한 학교와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일관되고 장기적인 서비스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허희선, 박승희(2011)는 학급차원의 또래도우미 활동 프로그램이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과의 친구관계를 향상하는데 효과가 있었으며, 또래도우미 활동은 소수 학생들만의 참여가 아닌 통합학급 학생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므로 학급 차원의 지원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친구관계 개선에도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교사의 장애학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지원적 태도, 교사들 간(통합학급 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적인 모습은 비장애학생들이 또래도우미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박승희, 홍정아, 2009).

또한 지체장애학생의 사회적 지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자원망 구축을 위한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비장애인의 장애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가족, 이웃, 학교, 친구 등의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지체장애학생의 발달단계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10-12세(초등)인 경우가 13-15세(중등)인 경우보다 학교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단계 특성으로서 장애인식 및 수용, 자아정체성 확립 등의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지체장애학생이 장애를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자기 통찰 능력을 강화하며 진로 및 진학 계획 지도를 통하여 바람직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특성별 학교생활적응의 정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체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적응의 정도를 살펴보았으나, 장애유형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생활적응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장애유형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정도를 살펴보고 유형별 서비스 개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장애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한 질적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양적 연구로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탄력성의 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요인간의 관계를 확인하였으나, 학교생활적응 과정에 대한 내용이나 사회적 지지 체계의 활용 방법 및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질적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확보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부자, 김은혜, 노충래 (2012). 한부모가정의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및 부자-모자가정의 비교. **학교사회복지**, 23, 29-50.
- 고근중 (2006). 저소득 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구자은 (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 구형모, 황순택, 김지혜 (2001). 자아탄력성 집단의 성격특질.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3), 569-581.
- 김동희 (2008).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민정 (2005).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가정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송자 (2005).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김시원, 김정연, 황지현 (2012). 국내 뇌성마비 아동 연구 동향 분석: 특수교육 관련 학술지를 중심으로(2001~2010년).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 55(2), 115-143.
- 김옥선, 오윤자, 최명구 (2005).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9(3), 761-777.
- 김영주 (2007). 장애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김영주 (2007). 가족 탄력성이 초등학교에 통합된 장애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김주경, 김자경, 강혜진, 서주영 (2006). 다중지능을 활용한 교수가 학습장애아동의 읽기능력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5(4), 301-324.
- 김형일 (2006). 장애아동을 위한 사회과 교수-학습 방법. **특수교육**, 22(2), 62-73
- 김희규 (2009). 통합학급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연구. **나사렛논총**, 13, 261-279.
- 곽민경, 서보경 (2012). 청소년이 지각한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조손가정 청소년을 중심으로. **복지행정논총**, 21(1), 75-112.
- 민천식, 오원석 (2011). 통합학급 경도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연구. **특수교육 연구**, 18(2), 23-48.
- 박상용, 김홍정, 박승재, 임성민 (2012). 지체장애 중학생과 일반중학생의 과학탐구활동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실태 인식 및 요구 비교.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3(1), 71-92.
- 박승희, 홍정아 (2009). “안 그러면 중우는 맨날 맨 마지막에 밥을 먹게 돼서요”: 통합학급의 비장애학생들이 장애학생에게 제공한 또래지원. **초등교육연구**, 22(2), 307-334.

- 박재국 (2012). ICF-CY를 활용한 지체장애학생의 활동과 참여 기능 및 수준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제**, 13(4), 359-386.
- 박재국, 김영미, 김혜리, 박영균, 정대영, 황순영 (2011). 장애아동·청소년의 학습활동 및 학교생활에 관한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3(2), 1-23.
-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박현선, 이상균 (2008). 청소년기 비행친구의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및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7, 399-427.
- 송영경 (2006).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및 학교적응. 석사학위 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영경, 김영희, 황성실 (2011).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20(1), 1-19.
- 신진희 (2005). 학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현기 (2012). 초·중학생들이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에 대해 갖는 교우기대감 비교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3(3), 185-208.
- 양은희, 이해균 (2011). 시각장애학교 중도시각장애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4), 269-289.
- 오혜경, 이경복 (2006). 장애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4, 285-315.
- 이경복 (2006). 장애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이미자 (2009). 초등학교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과의 관계 및 조절효과 탐색.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미화 (2011). 사회적 지지가 장애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이수경 (2004). 학교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원재, 박미화 (2009).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시각장애연구**, 25(1), 87-110.
- 이해균 (2008). 시각장애학교 기숙학생과 통학생의 인간관계와 학교적응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2), 219-242.
- 장우민 (2003).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학교적응 및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정미영, 문혁준 (2007).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8(5), 37-54.
- 정성인 (1998). 아동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 및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소연 (2009). 장애청소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학교 특성 요인. **재활복지**, 13(2), 287-312.
- 정일호 (2002). 초등상담교육의 과제와 방향. **초등상담연구**, 1, 1-15.

- 최승숙 (2006). 통합학급 내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을 위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모형과 실제. *학습장애연구*, 3(1), 117-137.
- 하현주, 박원모, 박명숙, 천성문 (2008).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논단*, 7(1), 1-19.
- 한동일, 우병호 (2010). 놀이를 통한 교수-학습이 장애아동의 연산능력에 미치는 효과. *시각장애연구*, 21(1), 135-149.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허희선, 박승희 (2011). 학급차원의 또래도우미 활동 프로그램이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과의 친구관계와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 10(1), 155-186.
- Armstrong, M. I., Birnie-Lefcovitch, S., & Ungar, M. T. (2005). Pathways between social support, family well being, quality of parenting, and child resilience: what we know.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4(2), 269-281.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Baron, R. M.,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rown, M., & Gordon, W. A. (1987). Impact of impairment on activity patterns of children,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personal social networks. *Child Development*, 50, 601-616.
- Dallas, E., Stevenson, J., & McGurk, H. (1993). Cerebral palsied children's interactions with siblings-I. Influence of severity of disability, age and birth orde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4, 621-647.
- Dumont. M., & Provost. M. A. (1999). Resilience in adolescents: protective role of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ies, self-esteem, and social activities on experience of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28(3), 343-363.
- Hemmingsson, H., & Borell, L. (1996). The development of an assessment of adjustment needs in the school setting for use with physically disabled students. *Scandinav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3(4), 156-162.
- Hommeyer, J. S., Holmbeck, G. N., Wills, K. E., & Coers, S. (1999). Condition severity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in pre-adolescents with spina bifida: Disentangling proximal functional status and distal adjustment outcome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4, 499-509.
- Kloh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 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70(5), 1067-1079.
- La Greca, A. M., Bearman, K. J., Moore, H. (2002). Peer relations of youths with pediatric conditions and health risks: promoting social support and healthy

- lifestyles.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23, 271-280.
- Lavigne, J. V., & Faier-Routman, J. (1993). Correlates of psychological adjustment to pediatric physical disorders: A meta-analytic review and comparison with existing models.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14, 117-123.
- Lightfoot, J., Wright, S., & Sloper, P. (1999). Supporting pupils in mainstream school with an illness or disability: young people's views.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25, 267-283.
- Missiuna, C., & Pollock, N. (1991). Play deprivation in childr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The role of the occupational therapist in preventing secondary disability.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5, 882-888.
- Mulderij, K. J. (1997). Peer relations and friendship in physically disabled children.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23, 379-389.
- Nabors, L., & Badawi, M. (1997). Playground interactions for preschool-age children with special needs. *Physical and Occupational Therapy in Pediatrics*, 17(3), 21-31.
- Philip, M., & Duckworth, D. (1982).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Windsor, England: NFER-Nelson.
- Richardson, P. K. (2002). The School as social context: social interaction patterns of childr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Th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6(3), 296-304.
- Varni, J. W., Setoguchi, Y., Rappaport, L. R., & Talbot, D. (1991). Effects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n depression in children with limb deficiencies.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72, 1053-1058.
- Varni, J. W., Rubinfeld, L. A., Talbot, D., & Setoguchi, Y. (1989). Stress, social support,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in children with congenital/acquired limb Deficiencie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5(1), 31-44.
- Wallander, J. L., & Varni, J. W. (1989).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in chronically ill and handicapped children. *America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7, 185-201.
- Wallander, J. L., & Varni, J. W. (1995). Appraisal, coping, and adjustment in adolescents with a Physical disability. In J. L. Walander & L. J. Siegel(Eds.), *Adolescent health problems*(pp. 209-231). New York: Guilford Press.
- Wilks, S. E., & Spivey, C. A. (2010). Resilience in undergraduate social work students: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to academic stress. *Social Work Education*, 29(3), 276-288.
- Wilson, S., Washington, L. A., Engel, J. M., Ciol, M. A., & Jensen, M. P. (2006). Perceived social support,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functional disabilities. *Rehabilitation Psychology*, 51(4), 322-330.

**42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4권 2호)**

- Witt, W. P., Riley, A. W., & Coiro, M. J. (2003). Childhood functional status, family stressors, and psychosocial adjustment among school-aged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the United States. *Archives of Pediatrics and Adolescent Medicine, 157*, 687-695.
- Yude, C., & Goodman, R. (1999). Peer problems of 9-to 11 year-old children with hemiplegia in mainstream schools: Can these be predicted? *Developmental Medicine and Child Neurology, 41*, 4-8.

The effects of self-resilience of studen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 Focused on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

Lee, Jun-Sang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aegu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self-resilience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order to promote school life adjustment of studen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and to prepare the ground for special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practice. To achieve these purposes, an analysis was made based on survey data with studen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T*-test, and ANOVA was performed so as to investigate levels of school life adjustment depending on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ose surveyed, and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made to test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firstly, the levels of school life adjustment by those surveyed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age, school types, residential types, disability types, or whether social welfare facilities were used. And secondly, it was found that the positive effects of self-resilience on school life adjustment by studen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were significant, and that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were significant in relation to the effects of self-resilience on school life adjustment. Based on these results, conclusions and suggestions were provided in order to promote school life adjustment by studen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Key Words** : studen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school life adjustment, social support, self-resilience

---

논문 접수: 2013. 03. 28 심사 시작: 2013. 05. 12 게재 확정: 2013. 06. 23